



“몸·마음 모두 아픈 현대인에게 치유 가피 내려주길”



점안식에서 참석내인들이 테이프를 커팅하며 불사성만을 축하하고 있다.

능인선원 9월 13일 30주년 기념법회 및 서울약사대불 건립식 현장



“오늘의 능인선원 있게 한 신도들 힘이 느껴진다.”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의장)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 초심 돌아가는 계기로”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세계 최대 크기 아픔도 최대로 치료할 것”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웅전에서 진행된 30주년 기념법회

“불, 법, 승!” 사회자의 구호와 함께 형형색색의 풍선이 하늘을 갈랐다. 38미터의 대형 약사대불을 덮은 통천이 벗겨지는 순간, 대불광장에 모인 1만여 대중들에게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포교도량 능인선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9월 13일 세계 최대 규모의 약사여래대불인 ‘서울대불’을 점안한 것이었다. 구룡산 자락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규모로 세워진 ‘서울대불’은 강남의 변화기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날 서울대불 점안식은 서울 서초동의 작은 상가 법당에서 출발한 이후 30만명의 신도를 거느린 능인선원의 30년사를 돌아보고, 발전을 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대불은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과 선원신도회가 16년 전인 1999년 발원한 것으로 38미터는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3년 3월 29일 능인선원 내 대불광장에서 불사의 첫 삽을 뜬 이후 청동만 100톤이 소요됐다. 원 재료값만 요즘 청동 시세로 100억원으로 총 건립비는 120억원에 달한다. 불사는 선원신도회가 청동조각을 부분별로 전문가에 의뢰해 제작 진행됐다.

지광 스님은 “흔히 현대를 말법(末法)시대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부처님 중에서도 ‘치유의 부처님’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불사(佛事) 배경을 소개했다. 지광 스님은 “16년 전 신도회의 제안 후 당시 청동을 미리 구해 놓아 다행이었다”며 “지금은 청동 가격이 너무 올라 재원을 마련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불사의 마침표를 찍는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정당대표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前법무부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종훈, 심윤조, 강석훈, 류지영, 나성민, 하태경, 이현승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능인선원 개원 30주년 축사를 통해 “능인선원은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왔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능인선원 사부대중(四部大衆)과 늘 함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점안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다.

밀운 스님은 “작은 법당에서 시작해 지금의 능인선원이 있기 까지는 부처님의 가피와 많은 대중들의 동참이 있었다”며 “앞으로 불법홍포에도 크게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도 영상법문을 통해 능인선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점안식에 참여한 김명순 씨는 “그동안 불사에 동참한 보람이 느껴진다. 매일 불사 성취를 위해

청동 100톤 · 120억원 소요

1만여 불자 운집해 치유 기원

정치인들 ‘동병상련’ 아픔 토로

기도했다. 약사여래의 가피로 아픈 이들이 아프지 않고 불심으로 생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몸과 마음, 치료하는 대불”

이날 법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각각 “마음이 아프다”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경을 털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축사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오늘 대불광장에 모신 약사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는 구원불이라고 한다”며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9월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

경에 처했고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자신은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전력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으며 딸의 의지에 밀려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의 말에 대중들은 웃으며 격려의 박수를 쳤다. 김 대표는 “정치의 초심은 민생일 것이므로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청중들의 격려에 화답했다.

이어 축사를 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도 김 대표와 같았다. 문 대표는 “약사불은 치료의 부처인데 저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는 부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세계 최대 크기라고 하니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세계 최대로 치료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의 경우 당에서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중 하나라도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이어 연단에 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대표와 문 대표의 말을 받아 “오늘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고 해 좌중을 다시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다시금 불거진 상태였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축사를 맡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김 대표, 문 대표, 박 시장이 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늘 용기를 잃지 않으면 된다”며 “불자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하자 법당의 대중들은 다시금 웃음을 터트렸다.

능인선원 원장인 지광 스님은 “나란 거목인 여러분이 아프다니 저도 아프다. 고통을 마다하지 말라.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명약”이라며 “역경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날 축사를 한 정치인들을 위로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풍요와 치유의 성지로 자리잡을 것”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이날 약사여래대불인 서울대불 점안에 대해 선원장 지광 스님(사진)은 “능인선원은 불자들이 수행을 통해 고해의 바다에서 헤쳐나오고자 하는 원력이 모인 곳으로 서울대불은 그 상징”이라고 말했다.

지광 스님은 “전쟁이 많았던 삼국시대에는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이 중심이었고 풍요롭던 통일신라 때는 약사여래 신앙이 중심이 됐다. 이는 풍요한 시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약사여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스님은 서방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불을 모시려 했으나 이런 뜻에서 약사여래를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광 스님은 “일본 나라의 도다이지(東大寺) 대불(16m)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 처음 신도회의 불사 제안 시 ‘왜 크게 지으려고 하나’ 싶었지만 건립된 대불을 보니 그 웅장함에 환희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 나라는 가난했지만 현재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들 모두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많은 상처가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많은 아픔이 있다. 약사여래불이 치유와 구원불로서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BTN 불교라디오

www.btn.co.kr

불교음악오디오 채널을 풍성하게 할 불교음악을 모읍니다

“혹시 ‘불교음악오디오 채널’ 들어보셨나요?”

10월 가을날, BTN에서는 불교음악오디오 채널운동을 시작합니다. BTN에서는 불교음악의 활성화와 방송포교의 다양화 차원에서 10월부터 위탁 운영을 결정하고, 불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거나, 또한 최신 다양한 불교음악과 독경, 부처님 말씀 오디오 채널을 통해 많이 소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보시 및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 보관하고 계신 불교음반(찬불가, 염불, 독경, 부처님말씀 등)의 음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 3270-3338 (BTN불교라디오 담당자) *E-mail : nadapacem@btn.co.kr
*보내주실 곳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BTN불교TV 빌딩 불교라디오 담당자 앞

